

전북지역 불교대학 졸업 화엄불교대학 등

화엄·전북·이리·무주·남원 불교대학 등 전북지역 불교대학들이 일제히 졸업식을 개최했다. 김제 금산사에서 운영하는 화엄 불교대학(학장 원행)은 2월 21일 전북불교회관에서 불교과 20기, 학림원 18기 졸업식을 병행했다.

원행 스님은 "일상의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불법을 배워온 학인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졸업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부처님 가르침을 잊지 말고 사회에서도 모범되는 불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불교대학(학장 한광수)도 22일 전주시 효자동 안산불교회관 법당에서 졸업식을 개최했다. 졸업식에는 불교학과 및 법사과 등 학인 100명이 참여했다.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 남원불교대학, 무주불교대학도 각각 졸업법회를 병행했다.

이번 전북도내 불교대학의 졸업식 병행에 맞춰 각 불교대학은 불기 2552년도 학사일정을 마무리 하고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불교대학 학인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학교 관계자들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륵사지유물 익산 살리네 익산시 "미륵사지 출토유물 관광상품화할 계획"

백제 금동대향로와 비견되며 백제 금속공예의 백미로 평가받는 익산 미륵사지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와 관련한 관광·상품화가 진행돼 익산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전북 익산시(시장 이한수)는 2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 관광·상품화해 관광자원을 확대하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의 익산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구 관광·상품화 등 계획에 따르면 전국 주요기관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익산미륵사지관광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2~10월까지 익산 문화일림이 시티투어를 운영한다. 또 3월 중 익산 스토리텔링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인터넷과 시

홈페이지, 전국 학교 등지에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5월에는 전국 여행 작가 50명을 초청해 익산 관광설명회와 관광객 유치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국제 사이언스 관광도시인 일본 츠크바시를 방문해 관광설명회를 열고 상담 및 홍보활동 등을 펼친다.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산하 아·태지역 68개 도시(한국 25개 도시)와 익산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구 공동 홍보마케팅을 전개한다. 전북권 및 금강권 관광 공동사업을 통해 수확여향단 및 여행관련업체 팸투어 유치홍보, 국제관광전 참가, 관광설명회, 백제문화체험벨트 조성 등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사리장엄구 모형 제작해 방한제와 귀걸이, 장신구, 열쇠 및 핸드폰고리 등 관광기념품을 개발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문화관광 매력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힐 것"이라며 "특히 미륵사지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출토를 계기로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지난해 전북도와 추진주체 등에 대한 협의했다. 익산시 담당자는 "이번 주 내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재 승격기준 등을 맞추기 위해 여러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1월 '익산역사문화지구 유네스코 등재 추진' 등을 올해 8대 과제로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활동가 자비쌀 나누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입)는 2월 13일 신수동 광주사무소에서 '제2회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활동가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를 열고, 지역 사회활동가 27명에게 '자비의 쌀'을 지원했다.

이날 지원된 자비의 쌀은 광주전남지역 30여 사찰 및 개인으로부터 모은 쌀로 1120kg 규모, 상근활동가에게 약 40kg씩 전달됐다.

행사는 행법 스님(선덕사 주지), 정화동 집행위원장(6·15공동회 광주전남본부), 서정훈사무처장(광주 시민단체협의회), 이대중 홍보차장(생명나눔실천운동본부 광주전남지부) 등 지역 불교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법입 스님은 인사말에서 "사회를 건강하게 이끄는 NGO단체 실무자

들에게 쌀을 나눠 서로간의 끈끈한 정을 나누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했다"며 "신도들이 부처님 전에 공양한 쌀을 정도세계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화동 집행위원장은 "자비의 쌀 나누기는 불교와 환경에 가장 적합한 행사인 것 같다"며 "단순히 사회활동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 정보교류의 시간을 갖는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자비의 쌀을 받은 활동가는 각 부분별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단체 실무자로, 김주비 기획팀장(놀이패 신동센터), 이경나 활동간사(목포 생명위술) 김병주 사무국장(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이대중 홍보차장(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 등 27명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복지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궁)은 2월 19일 고창군청 앞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행사는 'NO! 아동학대!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라는 주제로 진행돼 △아동학대 실태와 아동 권리를 설명 △아동학대예방을 다짐하는 아동지킴이 서명운동 △아동학대예방 안내서 및 홍보물품 전

달 △아동학대예방 사전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무궁 스님은 "아동학대 90% 이상이 가정, 이웃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해 아동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폭력·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면 주위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기성 작가 호남서 전통등 작업

호남불교문화원 제작·보급 나서



전통등등을 제작 중인 이기성 작가.

불교계의 가장 큰 축제인 봉축행사의 하이라이트는 5만여 사부대중이 아우러진 연등축제다. 연등축제의 가장 큰 볼거리는 사찰과 단체별로 나오는 전통등엄물, 로보트 태권V등, 사명대사등 등 불교와 현대를 아우르는 전통등엄물은 한국은 물론 전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서울에서만 제작되던 전통등엄물이 호남에서도 제작하게 된 계기를 끈다.

이기성 작가(이심초정화)와 이준엽 실장(호남불교문화원)은 호남지역에서 전통등을 제작·보급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호남지역 불교계에서는 광주비엔날레에서 활동 중인 이기성 작가의 전통등엄물 참여로 호남지역 연등축제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준엽 실장은 "수년 전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에서 조각가 이기성 씨를 만났다. 그는 오래전부터 전통등엄물을 제작해 온 불자였다"며 "호남불교의 흥흥을 위해 연등축제에 신바람을 불어넣고자 전통등엄물 제작·보급에 나섰다"고 말했다.

광주 한마음선원(선원장 혜월)의

30년 신도인 이기성 작가는 그동안 선원의 장엄물 제작을 도맡아 왔다. 이기성 작가는 "매년 용, 닭, 개 등 동물과 산, 구름 등 자연을 장엄물로 형상화했던 것이 인연돼 광주비엔날레 관계자의 추천을 받아 비엔날레 참여 작가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작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철사를 이용한 장엄물'로 독창적인 예술 영역을 지녔다. 그는 "철사

는 가볍고 튼튼해 세밀한 부분까지 표현하는 장점이 있어 대형 장엄물 제작에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는 최근 봉축기획단을 구성해 빛고을연등축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장 스님(증심사 주지)을 단장으로 위원은 도제 스님(원각사 주지), 무진 스님(홍릉사 주지) 등을 각각 위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원각사 청년회 법정택 회장

"대화 중심 법회로 청년불자 늘려요"

광주청년불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평가받던 원각사 청년회가 2월 7일 새 회장을 맞았다. 작년 대한불교청년지도자대회를 끝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에 어려운 책무를 맡은 이는 법정택 회장(33·법명 벽송·사진)이다.

법 회장은 대불련 광주지부장 출신으로 청년회 활동을 꾸준히 해 온 광주불교의 큰 일꾼이다. 원각사 청년회, 아니 광주지역 청년불교를 진두지휘할 법정택 회장은 "잘 웃는 얼굴은 아니지만 마음 속에는 항상 미소로 세상을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에는 최근 재창립해 다시 법회를 병행하기 시작한 문민정사 청년회를 비롯해 30여인 원각사 청년회 등 두 곳의 청년회가 운영 중이다.

원각사 청년회는 이번 33·34대 회장이 취임식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를 준비 중이다.

법정택 회장은 "연수국 등을 재정비해 조직관리에 힘쓰겠다"며 "법회 내용 등을 보다 알차게 꾸며 청년회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회장은 변화를 위한 지역불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설문지 조사, 회원간 이야기 등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원각사 청년회는 매주 정기법회를 병행하고, 연수국을 산하조직으로 두고 있다. 3개의 소모임(종물단 빛울림, 연꽃나눔 봉사단, 차(茶)모임)도 원각사 청년회의 자랑이다. 매주 법회에는 30여 청년불자가 동참하고 있다.

"법회를 마치고 회원 간 이야

기를 확대해 대화중심의 법회와 회원을 배가하는 포교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법 회장은 자신의 원을 이루고자 매일 108배 정진을 하고 있다.

법정택 회장은 광주지역 불교계에서 '비밀요원'으로 통한다. 항상 끝까지 남아 일을 꼼꼼히 마무리해 주는 뒤처리도 일꾼이지만 민중해결사기 때론,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불교환경연대, 사광주불교사암연합회 등 광주지역 불교단체에서 사장이 생기면 다른 도움을 청하다 마지막에 법 회장을 찾는다. 마치 영화의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을 부르듯이.

"편안함이 좋아서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어려운 법문이나 힘든 수행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마음의 안식을 주잖아요? 하지만 대불련 후배들에게는 수행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야 자기 삶의 중요부분까지도 부처님 말씀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법 회장은 불교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꿈도 있다. 아직 미혼인 그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시외방은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향후 뚜렷한 빈부격차로 사회적 갈등만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불교가 이들을 위한 일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종교편향으로 불교계가 혼란스러웠지만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많은 준비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청년불자가 배가를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원각사 청년회 회장 법정택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섬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육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능승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병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법당용, 외곽용
-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양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특 필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탐침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길이다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기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